

【 해외금융 뉴스: 북미 】

경제지표 회복세와 이에 대한 평가

- 경기선행지수,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 실물경제지표와 주가지수 등 금융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기업의 신규채용 및 은행대출이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대됨.
 - 미국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에 대한 12월 경기선행지수가 전문가 예상치 0.6%를 상회하는 1.0%의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발표했으며, 경기선행지수는 최근 6개월 연속 상승추세를 이어감.
 - 또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감소하고 소비자 기대지수도 상승하는 등 소비관련 지표도 개선되고 있으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S&P 500 지수 또한 2010년 7월의 저점에 비해 25% 상승함.
 - 기업 이익의 증가와 함께 GM과 메시 백화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규채용 계획이 증가하고 있으며,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 또한 2008년 말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나타냄.
- 그러나 각종 경제지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실업률 또한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을 중심으로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도 나타남.
 - 미국 주요 20개 도시의 주택가격을 종합하여 계산되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2010년 11월 전년동기대비 1.6% 하락하였으며, 전분기대비로는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주택시장의 재침체 우려를 낳고 있음.
 - 2009년 이후 세제혜택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했으나 정책효과가 소진되면서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한 가격하락세가 점차 중대형 주택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12월 현재 9.4%를 나타내고 있는 실업률은 구직을 포기한 실업자들이 경기회복 조짐과 함께 다시 구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새로운 일자리 규모도 실업률을 낮추는데는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New York times, 1/25)